

화학, 특허취득 투자액 2배 증가

유한양행, 발명특허 8건에 투자액 538억원 ... 제약기업 대거 포함

2004년 들어 상장기업의 특허 취득이 감소한 가운데 화학기업들의 특허 취득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7월23일까지 33개 상장기업이 68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해 2002년 1-7월과 비교해 회사 수는 2.9%, 취득 건수는 8.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화학 분야의 특허취득은 2003년 11건에서 2004년 20건으로 증가했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8억5400만원에서 85억95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취득은 2003년 41건에서 2004년 30건으로 감소했으나 투자금액으로는 754억원에서 752억4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허취득 건수 및 투자금액 상위기업에는 화학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특허취득 건수 상위기업

(단위: 건, 100만원)

순위	회사명	취득건수	투자금액
1	유한양행	8	53,760
2	삼화페인트	6	2,032
3	태평양	4	4,620
4	에넥스	3	16,500
	종근당바이오	3	5,000
	케이씨텍	3	3,500
	한미약품	3	1,500
	부광약품	3	930
	한국콜마	3	430
	한국화장품	3	608
5	동화약품	2	4,000
	대웅	2	3,100
	환인제약	2	2,500
	대웅제약	2	900
	삼익LMS	2	200
	씨크롭	2	-

특허출원 투자금액 상위기업

(단위: 건, 100만원)

순위	회사명	취득건수	투자금액
1	유한양행	8	53,760
2	에넥스	3	16,500
3	종근당바이오	3	5,000
4	태평양	4	4,620
5	동화약품	2	4,000
6	케이씨텍	3	3,500
7	대웅	2	3,100
8	일양약품	1	2,900
9	환인제약	2	2,500
10	삼화페인트	6	2,032

2004년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한 곳은 유한양행이 8건, 총 투자금액 537억6000만원으로 캐나다, 홍콩 등에서 위궤양 치료제에 관한 발명특허를 취득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삼화페인트가 6건(20억3200만원), 태평양이 4건(46억2000만원)을 각각 취득했으며, 종근당바이오가 3건(50억원), 한미약품 3건(15억원), 부광약품 3건(9억3000만원), 한국콜마 3건(4억3000만원), 한국화장품 3건(6억800만원), 동화약품 2건(40억원), 환인제약 2건(25억원), 대웅제약 2건(9억원) 등으로 2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한 16사 중 11사가 화학 또는 제약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특허권 취득 다음날까지 공시토록 정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27>